

호남 빛낸 국악 명창 한자리서 만난다

‘한여름밤 문화재 이야기’ 공연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윤진철·안숙선·조통달 등 출연



안숙선 명창 윤진철 명창 송재영 명창

국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이자 자긍심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더 깊고 넓게 가꾸어가며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2021빛고을대중류:한여름밤의 문화재 이야기” 공연이 19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원(이사장 황승욱)가 준비한 이날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윤진철 명창을 비롯해 황승욱, 조통달, 송재영 등 호남을 빛낸 예술인들이 출연한다.

공연은 취선의 금의소리연주단의 무대로 시작한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12현 가야금병창의 민요 매들리 ‘셋노랑저고리’, ‘복숭아꽃’, ‘봄노래’, ‘꽃타령’ 등으로 선보인다.

이어 윤진철 명창이 ‘적벽가’ 중 ‘장승타령-군사점고 대목’을 들려준다. 적벽강에서 대패한 조조가 화용도로 도망가는 과정을 그린 대목으로, 해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김덕속무용단은 가락의 흥과 멋을 담은 12채 장고춤을 보여주며, 가야금병창 황승욱(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명인은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조통달(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제5호 준보유자) 명창은 ‘심청가’ 중 ‘심청이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가는 범피중류’와 ‘수궁가’ 중 ‘수궁에 도착한 토끼를 에워싸고 잡는 장면이 재미있는 좌우나졸’을 선

사한다. 안숙선(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 명창은 ‘심청가’ 중 ‘심봉사가 동냥짓을 얻어먹으며 심청이를 키우는 내용의 ‘도화동아-날이차차 대목’을 준비했다. 송재영(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심청가 보유자) 명창은 ‘흥보전’ 중 ‘화초장막’을 무대에 올리며, 공연의 대미는 남도민요 ‘동백타령’으로 장식한다. 문의 010-9452-1700.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시는 인구 46만 명의 중소도시다. 우리에게 한국전쟁이후 70년간 미군이 주둔한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시민들을 위한 문화인프라 건립은 제약을 받았다. 실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비상하는 담대한 비전을 내걸었다. 바로 ‘이건희 컬렉션’을 상설전시하는 전용관 건립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장의 기증 정신을 살리고 좋은 작품을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를 받았던 경기도 북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사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의 꿈을 꾸게 된 데에는 백영수 미술관이 있다. 지난 2018년 개관한 백영수 미술관은 신사실과 거장 백영수(1922-2018)화백의 의정부 호원동 자택에 들 어선 사립 미술관으로, 의정부 최초의 미술관이 기도 하다.

수원 출신인 백 화백은 40여 년 전 도봉산에서 내려다 본 동네 풍경에 반해 연구도 없는 이곳에 집과 작업실을 짓고 파리로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머물렀다. 지난 2011년 영구 귀국한 후 낡은 자택을 헐고 유럽풍의 미술관으로 건립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사랑방으로 내놓았다.

도시의 미래를 바꾼 미술관

나오자 유치전에 뛰어난 것이다. 현재 가장 ‘이건희 미술관’은 달빛동맹을 내세운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여수 등 20여 곳의 지자체들이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 이번 도전을 두고 국내 미술계 일각에선 다소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수도권 외곽의 교통중심지이지만 변변한 공립미술관이 없는 문화보도지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의정부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 2007년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캠프 잭슨 9만2천㎡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아트센터, 예술인마을, 문화예술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의정부시는 바로 이곳에 이견희 미술관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궁극적으로 수십년 간 군사기지는 이유로 문화소의

백영수 미술관에 ‘날개’를 단 건 의정부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술관 하나 없었던 의정부시는 개인미술관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201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거해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 비록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의정부에 터를 잡고 작품활동을 펼친 백 화백의 스토리를 엮어 ‘거장의 예술혼이 숨쉬는 고장’으로 도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다.

개관 이후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의정부시는 지역민의 문화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술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도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잘 만든 미술관은 도시의 브랜드, 나아가 미래를 바꾸기도 한다. 이제 의정부시가 척척한 군사도시에서 화사한 문화도시로 변신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씻김굿·다시래기 등 남도문화 뮤지컬로 제작

전남문화재단, 브랜드 공연발표회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무안군 남도소리유희터 공연장에서 남도브랜드 공연 제작발표회(사진)를 갖고 남도브랜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재단은 지난 2월 강진, 영광군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남도(재단), 강진, 영광군 3개 지자체와 예술단체가 협업해 공연을 제작하고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1개소 당 2회씩 총 6회 순회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연 작품은 국가 무형문화재인 씻김굿, 들노래, 다시래기, 흥타령 등 남도에서 전승되어온 상징적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뮤지컬로 제작할 계획이다.

기타, 드럼 등 대중적인 밴드 음악과 해금, 장고 등 국악 연주가 한데 어우러지고 영상을 활용한 무대디자인과 현대적 의상을 활용해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총연출 손재오 감독이 총감독으로 작품 제작 전체를 총괄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송순단 전수자와 유명 연극단체 크리에이티브팀 지오가 참여한다.

재단은 이달까지 출연진 구성 및 음악 편곡을 마치고 7-8월 공연연습과 무대제작을 거쳐 9월-10월 하반기에 남도소리유희터, 강진아트홀,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장영한 소리꾼 초청

17~18일 인문학강좌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다섯 번째 인문학강좌가 17·18일(오전 10~12시) 이틀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4층에 위치한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장영한(사진) 소리꾼으로, ‘판소리 다섯바탕’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첫날 17일은 ‘판소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18일은 ‘판소리 다섯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한 대목씩 배우기’가 이어진다.

장영한 씨는 전남대 국악과 및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전남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로 창작극 ‘안중근’, ‘고경명’, ‘이순신’ 등 다양한 극의 주역을 맡았다. 현재 광주시립창극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강좌는 방역수칙에 따라 10명 내외로 제한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희망지는 강좌 시작 전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정율성 음악 기리는 성악 대회

광주문화재단은 ‘2021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성악콩쿠르’는 광주 출신 항일음악가 정율성의 음악을 기리는 성악가들의 경연이다. 총상금 3800만원(1위 1500만원) 등 규모로 국내 최고 성악콩쿠르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동안 신진 성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경연 일정은 1차 남·여 예선 8월 7일, 2차 예선 8월 14일을 거쳐 본선은 오는 8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1996년부터 시작된 광주성악콩쿠르는 오스트리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심인성(베이스, 1996년)을 비롯해 한국인 테너 최초

이탈리아 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데뷔해 유럽의 ‘한국인 칼라프’로 극찬받은 이정원(테너, 1996년) 등 수상자들 수준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해외 유학생들 접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JTBC의 ‘팬텀싱어’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라포엠’ 멤버 중 박기훈(테너)은 2017년 대회 우승자이며, 정민성(바리톤)은 2019년 준우승을 했다.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 성악을 전공한 해외 음악대학 유학생 및 내국인이며 신청은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 10만원. 문의 062-670-7442. /박성현 기자 skypark@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